탑의 진화

⑦ 마하보디(대보리사) 대탑

부처님 성불자리… 여러차례 복원

수자타 여인의 유미죽 공양을 받은 고타마 태자는 네란자라 강을 건너 보리수 나무 아래 자리를 마련하여 깊은 선정에 들었다. 마침내 새벽하늘에 샛별을 보는 순간 마음 속의 욕망과 잡념이 사라졌다. 드디어 깨달음을 방해하던 마왕을 물리치고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체득한 것이었다. 고타마는 이제 더 이상 수행자가 아니라 성불을 이룬 부처님이 되셨다.

이 성스러운 깨달음의 장소를 기원전 3세기에 아쇼카 대왕이 그냥 지나칠 순 없었다. 보리수나무 밑의 금강좌를 중심으로 동쪽에 불탑을 조성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마하보디 대탑의 최초 조성이었다.

마하보디 대탑은 인도 북동부 비하르(Bihar)주 가야(Gaya)시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불교의 4대 성지 중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 불탑이다. 현재 높이가 55m나 되는 이 탑은 방추형의 9층탑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는 매우 웅대한 탑이다.〈사진1〉

지난 호 까지 알아 본 인도의 불탑은 산치의 탑처럼 대부분이 원형의 기단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마하보디 대탑의 경우 기단은 물론 탑신이 사각형을 이루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4각형 구조에 대한 조성의 근거는 여러 경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장아함경〉속의 〈기세경〉을 비롯하여 〈불반니원경〉과 〈대루탄경〉, 〈반니원경〉, 〈기세인본경〉등에 불탑의 형상에 관한 경설이 있는데, 모두가 한 결 같이 사각형의 구조를 암시하고 있다.

〈불반니원경〉에는 **불탑의 길이와 너비는 한 길 다섯 자가 되게 하고, 사리를 담은 황금병을 바로 그 중앙에 안치하며, 비단 번기를 높이 달아라.** (〈대정신수대장경〉 1권 174쪽 하단)고 하며, 〈대루탄경〉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사거리 가운데 칠보로 탑을 세우고 그 속에 사리를 안치한다. 탑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40리 이다.** (〈대정신수대장경〉 1권 283쪽 상단)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반니원경〉에서도, 사부대중이 구이성에 모여 아난존자에게 불탑의 조성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니, 아난은 **"마땅히 성에서 40리쯤 되는 위치향(衛致鄕) 사거리 가운데에 불탑을 세워야 한다. 재료는 구이국의 호족들이 함께 만든 벽돌로, 높이는 1장 5척이며, 너비 또한 가로와 세로가 모두 1장 5척으로 해야 한다. 또, 황금항아리에 사리를 담아 그 속에 안치하고 찰간대를 세워 법륜을 표시하고 그 위에 비단 번기를 단다.** (〈대정신수대장경〉 1권 190쪽 하단) 라고 알려주었다.

이처럼 불탑의 크기는 경전마다 차이가 있지만, 형상은 모두가 사각형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하보디 대탑이 사각형의 구조를 하는 것은 경전에 근거한 당연한 것이었다.

물론 아쇼카 대왕이 처음 조성 할 당시에는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다. 5세기에 중국의 법현스님이 이곳을 참배하였다. 그가 남긴 기행문인 〈법현전〉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득도하신 곳에는 탑이 있고, 세 개의 승가람이 있는데 모두 스님들이 거처하고 있으며, 보시물이 풍부하여 인근 민가의 주민들까지 모두가 풍족하게 살고 있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 〈법현전〉에 의하면, 비록 구조나 형상은 알 수 없지만, 불탑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세기에 이곳을 방문한 중국 당나라 현장스님의 〈대당서역기〉에 의하면, 보다 자세한 기록을 엿 볼 수 있다.

대보리사는 3층이며, 담장의 높이는 4장(丈)으로 벽돌로 되어 있다. 사자국(獅子國)의 왕이 이곳을 사들여 절을 지어 대승 상좌부 소속의 천여 명의 스님들이 주석하고 있다. 이 탑에 봉안한 사리는 큰 것은 진주와 같고 크기는 사람의 손가락 마디와 같다. 매년 1월 15일 저녁이 되면 이 사리는 반드시 광명의 빛을 발하고, 하늘에서는 기이한 꽃이 떨어져 탑 앞의 보리수나무를 덮는다. (중략) 보리수나무 동쪽은 푸른 벽돌로 지은 대탑이 있는데 높이는 160여 척이요, 층층으로 되어 있는 감실에는 모두 불상이 있으며 네 벽에는 여러 보살상을 새겨 놓았고 꼭대기는 금동의 아마륵가 열매 모양으로 되어 있다.[이것을 보병(寶甁) 또는 보대(寶臺)라 한다.] 동쪽은 3층탑이 접해 있는데, 그 처마가 특이하다. 모두 금과 은으로 장식하였으며 3겹 문 밖의 감실에는 왼쪽에 관세음보살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미륵보살상이 있는데 모두 은을 재료로 하여 조성하였다. 높이가 1장쯤 되는데 이것은 아쇼카 대왕이 지은 정사로서 처음에 작았던 것을 뒤에 확장시킨 것이다.

이 〈대당서역기〉의 기록에 의하면, 현재의 모습처럼 9층이 아닌 3층의 불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탑이

부처님 성불자리 마하보리대탑 조성

불교 4대 성지 중 가장 성스러운 곳

터키군 침공 폐허 · 미얀마 왕 복원

한동안 힌두교 사원으로 오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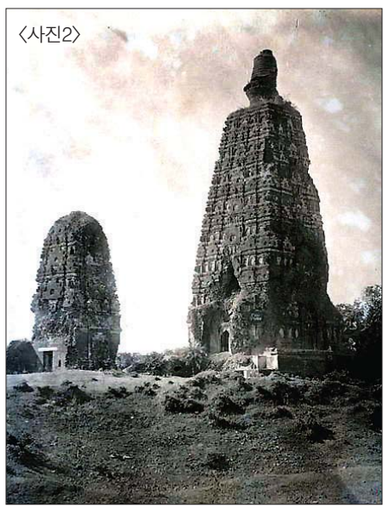
고승 담마팔라 등 '불교성지화' 추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사진1〉

마하보디 대탑은 인도 북동부 비하르(Bihar)주 가야(Gaya)시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불교의 4대 성지 중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 불탑이다. 현재 높이가 55m나 되는 이 탑은 방추형의 9층탑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는 매우 웅대한 탑이다.

〈사진2〉



마하보디 대탑은 폐허와 복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

〈사진3〉

마하보디 대탑 1층은 굴로 된 법당으로 불상이 모셔져 있다.

〈사진4〉

마하보디 대탑 담장 옆에 있는 보리수나무

지금처럼 산재하고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11세기에 터키의 군대가 침공하자 이곳은 폐허가 되어 더 이상 불교성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인도에서 불교가 쇠태하자 이 대탑은 힌두사원이 되어 불자들은 참배도 할 수 없게 되었다.

12세기에 이르러 미얀마의 왕이 이 정보를 듣고 이곳의 힌두 왕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 불탑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 나서야 거의 현재처럼 복원하였다. 복원을 완성한 미얀마 왕은 이 곳의 왕과 함께 참배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이후 18세기까지 마하보디 대탑은 폐허와 복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 고고학적인 전문지식 없이 복원되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귀중한 유물들과 불탑의 원형이 크게 소실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사진2〉 그러다가 19세기 말인 1883년 영국의 고고학자 알렉산더 커닝햄과 베글라(J.D Begllar) 그리고 인도의 고고학자 라젠드랄 미트랄(Rajendralal Miitra)박사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발굴과 복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커닝햄의 주장에 따라 그 이전까지는 힌두교 사원으로 여겨졌던 이곳이 부처님의 성도지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에 불자들에게는 큰 의의가 있었다. 1879년에는 '동방의 빛(The Light of Asia)' 이라는 서사시를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린 영국시인 에드윈 아놀드(Edwin Arnold)에 의하여 마하보디 사원의 대탑 등이 세상에 알려졌다. 1891년에는 스리랑카의 고승인 담마팔라가 부다가야에 도착하여 불교성지를 보존하고 불법홍포를 자신의 수행목적으로 삼아 열심히 포교활동을 하였다. 특히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의회에 인도 대표로 참석하여 마하보디 사원의 불교성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하트마 간디, 시인 타고르 등이 가세하여 당시의 인도 수상 네루에 의해서 이 성지를 힌두교들로부터 불교도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하였다.

2002년 6 월 27일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지난해인 2013년 7월 7일 새벽에 9개의 연쇄 폭발의 폭탄 테러사건이 있었다. 다행히도 깨달음의 상징인 보리수나무나 불탑의 유적은 큰 손상이 없었으나 순례 객이 부상을 입는 상상하기도 끔직한 사건이었다.

마하보디 대탑 1층은 굴로 된 법당으로 불상이 모셔져 있다.〈사진3〉 약 6평정도 규모의 법당 서쪽 벽면에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상은 1m 정도의 불단위에 모셔진 본존불이다. 이 본존불의 높이는 약 1.8m 이며, 9~10세기경에 팔라왕조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마한트의 힌두사원에 방치되었던 것을 이곳으로 모셔온 것이다. 그러나, 637년에 현장법사께서 친견한 불상은 높이가 11자 5치(약 3.5m)로 현재의 불상보다는 상당히 큰 불상이었다. 지금의 본존불은 재질이 검은 색깔의 석불이었으나, 미얀마의 한 불자가 금을 시주하여 개금을 하였다.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하고 있으나, 언제나 황금색의 가사를 걸치고 계셔서 일반인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한 때 힌두사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부처님 불상 밑에 링가를 모셨으나 지금은 철거되었다.

마하보디 대탑 담장 옆에 있는 보리수나무는 고타마 싯다르타 태자가 이 나무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 마침내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셨기에 깨달음의 나무라고 한다. 현재의 보리수는 부처님 당시부터 5대째 자손에 해당된다고 전하고 있다.〈사진4〉

이 보리수나무에 대하여 〈법원주림〉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한다.

그 나무의 푸른빛은 겨울과 여름에도 변하지 않는다. 열반에 드는 날과 늦여름에는 한꺼번에 말라 떨어졌다가 하룻밤만 지내면 새로 나서 옛날과 같이 된다. 뒤에 아쇼카 대왕의 비(妃)가 이 나무를 베어 서쪽으로 수십 보 밖에 모아 두고 하늘에 제사지내기 위해 불을 질러 태웠다. 연기와 불꽃이 끊이지 않고 오를 때 갑자기 두 나무가 나면서 사나운 불길 속에서 잎이 무성하게 피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재보리[灰菩提]나무라 했다. 왕은 그것을 보고 신심이 생겨 향유(香乳)를 거기에 쏟아 부었다. 다른 뿌리에서도 아침이 되자 나무가 나서 전과 같이 되었다. 왕비는 화를 내어 그날 밤에 또 그것을 베었다. 왕은 다시 기도하고 향유를 쏟아 부었다. 며칠이 안 되어 나무는 다시 났다. 돌로 담을 둘러쌓았는데 둘레는 1장(丈) 남짓했다. 근래에 금이국월왕(金耳國月王)이 또 이 나무를 베려고 샘물 밑까지 파내려갔으나 그 뿌리 밑에까지 갈 수 없어 결국은 불을 놓아 태우고 또 감자(甘蔗)로 씻어 그것이 썩어 뿌리가 끊어지게 했다. 몇 달 뒤에 아쇼카 대왕의 손주가 나무가 베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온몸을 땅에 던지고 스님을 청해 이레 동안 경행하고, 나무 주위에 큰 구덩이를 파고 수천 마리 소의 우유를 거기에 쏟아 부었다. 엿새째 되던 날 밤에 나무는 다시 나서 1장(丈)이 넘었다. 그러나 뒤에 다시 베일까 두려워해 그 주위에 높이 2장 4척의 돌담을 쌓았다. 나무는 지금 돌담보다 2장 넘게 더 높고 그 둘레는 3척이 넘는다. (〈대정신수대장경〉 53권 502쪽 중단) 라고 하여 이 보리수나무의 종교적 신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 · 우인보

www.shcandle.com

2014년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원기둥연꽃나비 – 화이트/핑크/엘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ϕ×29㎝)

밀납원기둥 연꽃나비

원 기 둥 108나비

3×6 꽃과나비

원기둥나비 – 화이트/핑크/엘로우/살구/그린/개나리(7.4ϕ×29㎝)

국산향

우리향,미연향,무향

쑥향,백목향,목향

설죽매,인삼향,대발향

신제품

원기둥금나비

밀대나비

육각초나비

수입향

와 까 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라일락향

향수림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DWKS-108
DWKS-3000

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